

Birol IEA 사무총장, 원자력발전 가속화 필요성 역설 - Birol calls for nuclear acceleration -

현재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말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추가적인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한 Birol 사무총장은 각국이 제시한 목표를 제때 달성해야만 지구 기온 상승을 1.8°C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프랑스가 개최한 COP26 원자력 특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Birol IEA 사무총장 (Image: Dean Calma/IAEA)

Birol 사무총장은 프랑스가 주최한 한 특별행사에서 두 가지 소식을 전했다. 먼저 그는 “COP26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에서 각국 간에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는 다르게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메탄 배출 감축 약속은 물론 여러 국가가 나서서 탄소배출 “순제로(net-zero emissions)”실천을 약속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그는 말했다.

“내가 파리에 있는 IEA 동료들에게 세계 각국들이 공언한 약속들이 지켜진다면 지구의 기온이 어

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물어봤다”고 말한 Birol 사무총장은, “그랬더니 내게 돌아온 대답은 인도를 포함하여 이번에 세계 각국이 COP26에서 한 약속과 함께, 그동안 여러 국가들이 공식석상에서 한 약속들을 제대로 잘 이행하기만 한다면 지구의 기온 상승을 1.8°C 이내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각국이 공언한 약속이 제대로 잘 지켜질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국가들에게 보내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시그널



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평가

Birol 사무총장이 꺼낸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에너지 변동성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Birol 사무총장은 IEA가 발간한 『2050년 넷 제로 - 탄소중립 에너지 로드맵 보고서』(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report)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이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 중의 하나가 2050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정

도는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irol 사무총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이 야말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Birol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 첫 번째는 현재 클린에너지이면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원전의 장기적 운영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소형 원자로의 시장 출시와 같은 혁신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신규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IEA의 넷 제로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원전의 건설 속도가 지금보다 최소 다섯 배 정도는 더 빨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과 같은 국가 하나만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Birol 사무총장은 말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에서 다시 한 번 신규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야 하며, 그러길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Kaif**